

보성 '울포해양복합센터' 설계 보완... "혁신적 공간"

2026년 완공... '해양레저' 명소
실내 서핑 등 공간 효율 극대화
국내서 가장 깊은 다이빙 시설
"관광객이 사계절 찾는 곳 육성"



보성군이 '울포해양복합센터' 설계 변경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레저 랜드마크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울포해양복합센터 조감도. 보성군 제공

보성군이 '울포해양복합센터'의 설계를 보완하며 대한민국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혁신적인 공간 구성과 효율적 설계를 통해 사계절 내내 활기를 띠는 해양레저 명소로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8일 보성군에 따르면 울포해양복합센터는 보성군 회천면 울포관광지 내에 총 사업비 484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대규모 해양레저시설로,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군은 당초 설계에 공간 활용 극대화 및 기후 변화 대응 구조 보완을 추가해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설계 변경으로 총면적 9046.62㎡(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는 유지되지만, 최고층이 기존 4층에서 5층으로 늘어나 용적률이 확대되고 공간 배치 효율도

개선됐다. 특히 서핑과 다이빙 중심의 해양스포츠 시설을 강화하고, MZ세대를 겨냥한 감각적인 휴게 및 체험 공간도 대폭 확충됐다.

기존 1층 야외 풀장을 없애고 실내 서핑장을 3개 라인으로 확대해 폭을 12m까지 넓혔으며, 이를 통해 동시 수용 인원을 크게 늘렸다. 또 지하층에 있던 기계·전기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해 해안가 인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위 상승 및 해일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유지

관리 효율도 높였다.

서핑 관람객을 위한 라운지 공간도 개선됐다. 기존 2층의 실내 물놀이장은 3층으로 변경되며, "다목적 휴게 카페 공간"으로 조성돼 서핑과 다이빙을 관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복합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4층에는 수중 스튜디오와 북카페가 마련돼 해양레저와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지는 입체적 체험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로써 울포해양복합센터는 단순한 해

양레저시설을 넘어 사계절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군은 울포프론트나드 조성사업과 연계해 사계절 이용 가능한 야외광장을 조성하고 버스킹 공연장과 불명 공간 등 이색 콘텐츠를 추가,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가장 주목할 시설은 5층에 들어설 다이빙 풀이다. 수심 41.5m(34m×13m)에 달하는 다이빙 풀은 국내에서 가장 깊은 규모로,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전문 다이빙 전용 공간으로 설계됐다.

또 다이빙 라운지와 연계된 전문 교육·체험 시스템이 함께 운영되며, 장비 보관실, 교육장, 잠영 공간 등 부대시설도 함께 마련돼 국내외 다이버에게 최상의 훈련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철우보성군수는 "울포해양복합센터는 대한민국 남해안 해양레저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공간 활용도와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 MZ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객이 사계절 내내 찾는 명소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장흥군, 지방보조금관리 교육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장흥군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템e)을 활용하는 민간보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진행한다. 8일 밝혔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은 기존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지방보조금 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계획부터 집행, 사후관리 등 보조사업의 전 과정을 정보화해 처리한다.

지난해 1월부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보조사업자들이 많고, 보조사업 집행·정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아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현장교육은 오는 24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장흥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보템e 개요부터 금융정보관리, 집행 과정 등을 안내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소관 사업부서를 통해 참가 신청하거나 장흥군 예산팀(061-860-55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민간보조사업자들이 시스템을 숙지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진환 기자

고흥 유자차, 53톤 체코 수출길 올랐다

14만 달러, 한화 2억원 규모 유럽 수출개척단 후속 조치



고흥군은 지난 7일 두원농협 유자가공 사업소에서 공영민 군수와 두원농협 및 원인터내셔널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 유자차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출은 2022년 고흥군 농수산물 유럽 시장 수출개척단의 후속 조치로, 53톤 14만 달러(한화 2억1000만원) 규모의 고흥 유자차가 체코 수출길에 올랐다.

유자를 수입한 SV. Martin s.r.o는 체코 플젠에 소재를 둔 식품원료 전문 무역회사로, 고흥 유자차를 카페 등 식음료 업체에 납품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수출로 고흥 농수산물의 유럽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고 체코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고흥 유자차의 인지도를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7일 공영민 고흥군수(오른쪽 두번째)가 고흥 유자차 수출 상차식에 참석해 신선식 두원농협 조합장(왼쪽 두번째)과 함께 고흥 유자차 수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공영민 고흥군수는 "2022년 유럽 수출개척단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이번 유자차 수출은 고흥 농수산물의 글로벌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자뿐만 아니라 고흥 농수산물을 세계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지난 2일 광양시 도선국사체험마을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이 두부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순천시, 매실 가공·저장시설 시범 운영

관내 과수 농가 대상

순천시가 관내 매실 농가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농가도 직접 가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순천시 매실 가공·저장시설(승주읍 승주로 538-8)을 시범 운영한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가공시설·저장시설을 갖추지 못한 관내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사용을 무료로 개방한다.

신청은 친환경농업과 방문 접수 또는 전자메일(dlekwls09@korea.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순서에 따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친환경농업과(061-749-8876)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가공시설에서는 매실 원물을 세척·탈수하고, 씨를 분리하거나 절단하는 등의 기본 가공부터, 절임·배합기·건조기·누름성형기 등을 활용한 매실 원액, 매실청, 건과일, 당절임, 과일잼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생산이 가능하다.

금속검출기와 포장기를 통해 위생적으로 완제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저장 시설에서는 매실 원물 및 가공품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소규모 농가들도 세척, 씨 분리, 건조, 포장 등 다양한 가공공정을 직접 경험해보면서 과수의 가공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 수요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조모임 '활기'

광양시는 최근 도선국사체험마을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175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프로그램 '한 발로 서고 두 발로 뛰어보자 풀짜'를 운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모임은 신뢰감 형성하기, 불안 다루기, 구성원의 상호작용 관찰하기, 분위기 침체 다루기, 저항 다루기, 갈등 다루기, 구성원의 성장 및 변화에 대한 소감 나누기, 복합적인 감정 다루기 등으로 진행됐으며 두부와 강정을 직접 만들고 함께 먹는 시간을 가졌다.

자조모임 프로그램은 오는 7월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시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만족도를 높이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유리공예체험(우드트레이), 라크라메공예체험(매듭핸들가방), 천연염색공예(천연낮잠바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최난숙 광양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공감을 얻는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순천시, 전문가 초청 부모 특강 11일 오전 10시 신대도서관

순천시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신대도서관에서 '자녀의 사회성을 높이는 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부모 특강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강에서는 부모 교육 전문가이자, '멘탈이 강한 아이가 결국 해냅니다'의 저자인 임영주 박사를 초청해 자녀의 자존감을 올리는 대화법, 학교폭력 등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 자녀 양육의 솔루션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시는 매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지도자를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집단상담 및 정서코칭, 성·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주제의 부모 토크콘서트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참가 신청은 부모, 지도자 등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네이버폼(<https://naver.me/FMcNa14J>)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누리집(sc1388dream.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1-749-3608)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건강한 부모가 자녀 역시 행복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진일보

@ji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jinilbo.com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